



안녕하세요! 수녀님들~박선희 마리아그레띠 수녀입니다. 저의 성소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와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4 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의 권유로 청년성서모임을 하였습니다. 그 때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 논산 영성의 집 향심기도 피정에 참석하여 우리 수도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성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향심기도 후속 모임을 찾던 중 고요속의 현존 떼제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성소담당자 수녀님을 만나 2005 년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 년에 첫서원을 하고

2015 년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본당사도직, 본원 내부사도직을 하였고 지금은 성소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수녀님과 기도파트너와 펜팔을 하게 된 이유는 종신서원을 준비하며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우리의 영성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신 수녀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 순간을 사시는 수녀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6 월에 제주도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피정했던 사진과 내용들을 Corr, Sr, Mary Ann 수녀님께 보내드렸고, 수녀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녀님이 피츠버그에서 빈첸시오 협회인 North Side 라는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사도직을 하고 계시는데 7 월에 집 없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메일을 받고 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파트너와 펜팔을 통해서 서로가 하는 사도직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영어라는 어려운 벽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짧은 문장을 작문해서 메일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면 신기하게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녀님과 만날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Hello! Sisters! I'm Sister Park, Seon Hee. My baptismal name is Maria Goretti. My vocation story goes back to my time in university. As a Catholic, I began my faith career a little bit later than other people, in that I was baptized when I was a senior at university. Participating in the Youth Bible Study made me have deep relationship in God's love, long for more prayers, and made me visit Nonsan Spirituality Center for Centering Prayer.

Since then I came to know our community, attended Taize Prayer and vocation meetings, and finally entered our community in 2005. In 2009, I made

first vows, and in 2015 final vows. My apostolate experiences are parish ministry, inner ministry at the Provincial House, and now I am working as a vocation director of the Korean province.



My prayer partner is Sr. Mary Ann Corr. She sent me a picture of her smiling face, and I am always looking at her picture, pray for her, email her, and we exchange cards with

each other through our sisters who are going and coming between US and Korea. I applied for the interprovincial communication because during my perpetual vows preparation experience in USA, I was inspired and touched by our American Sisters who live the spirituality of our community. It gave me the desire to know our Sisters more and more.



I sent some pictures that I took during the retreat for Youth in Jeju Island to Sr. Mary Ann, Corr, and she sent her letter saying that she was very pleased to receive it and would pray for us. She asked me to pray for the program that will be provided in July for the families with no house to live in through the St. Vincent DePaul Society in Pittsburgh. Like this, she and I a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deeper, about the ministries and spirituality in our daily lives via exchanging emails and letters as prayer partners. Of course, the language barriers are placed between us; yet there is no problem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espite my poor English with my efforts to look in a dictionary. The more often I send messages to her,

the more I get courage to communicate.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someday

